

특별기고

본 <특별기고>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의 저명한 일본학 연구자, 활동가, 예술가 등의 기고이다. 이미 일본학의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온 필자들의 최근 연구 및 동향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연구 활성화와 교류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별기고 집필자 프로필]

徐龍達(Suh Yong-Dal) 약력

1933년 한국 부산시 출생. 42년 독일, 고베대학 대학원 경영학 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71년 모모야마가쿠인대학(桃山学院大学) 교수, 도서관장, 경영대학장, 평의원 등을 거쳐 2003년 명예교수. Germany · Frankfurt대학, Austria · Wien대학, United Kingdom · Buckingham대학, London대학의 객원교수 등, 한국 외무부(外務部)의 자문위원, 현재는 재일한국장학회 명예회장, 국제 재일 한국조선인 연구회 명예회장, 일본 국공립대학 외국인교원 임용법을 성립시키고, 한조선인들의 외국인 대학교수예의 길을 개척,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의 리더로서 활약.

편저 : 『21세기 한조선인의 공생비전』, 『다문화 공생사회에의 전망』, 『공생사회에의 지방참정권』이상은 일본평론사 간행, 『재일한국·조선인과 인권』유희각 등 다수.

■ 徐龍達(Suh Yong-Dal) 略歴

1933年韓国釜山市出生。42年渡日、神戸大学大学院経営学研究科博士課程修了。71年桃山学院大学教授、図書館長、経営大学長、評議員などを経て2003年名誉教授。ドイツ・フランクフルト大学、オーストリア・ウィーン大学、イギリス・バッキンガム大学、ロンドン大学の客員教授など、韓国外務部の諮問委員、現在は在日韓国奨学会名誉会長、国際在日韓国朝鮮人研究会名誉会長、日本国立大学外国人教員任用法を成立させ、韓朝鮮人の外国人大学教授への道を拓き、定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獲得運動のリーダーとして活躍。

編著 : 『21世紀韓朝鮮人の共生ビジョン』, 『多文化共生社会への展望』, 『共生社会への地方参政権』以上は日本評論社刊行、『在日韓国・朝鮮人と人权』有斐閣など多数。

鄭燦源(Chung Chan-Won) 약력

전공분야는 국제 커뮤니케이션. 재일 한국인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 「외국인행정에 대한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재일외국인행정을 중심으로-」, 「재일한국인의 의식구조」, 「일본인의 의식구조」에 관한 논문과 저서로는 「재일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식차이」(집문당, 2004)가 있다.

편저 : 『외국인행정에 대한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재일외국인 행정을 중심으로-』

■ 鄭燦源(Chung Chan-Won) 略歴

専門は国際コミュニケーション。在日韓国人問題を研究している。「外国人行政に対する在日韓国人と日本人の認識差異に関する研究(在日外国人行政を中心に)」、「在日韓国人の意識構造」、「日本人の意識構造」に関する論文と、著書「在日韓国人と日本人の認識の差」(集文堂, 2004)がある。

특별기획

이번 <특별기획>에서는 2009년 9월 18일 고려대학교 일본연구 센터가 주관한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의 발표 내용을 수록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측 연구자 5명과 기초강연자 1명, 한국 측 연구자 3명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기획에서는 일본 측 발표자의 논문을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로 게재하여, 금후 일본 문학 연구를 비롯한 일본 지역 연구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별기획 집필자 프로필]

노부히로 신지(데이쿄대학, 도쿄대학 명예교수)

동경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를 거쳐 동경대학 명예교수. 전공은 일본근세문학. 젓코분게이. 편저서에 『라쿠고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1986), 『지카마쓰한지 예도작자 조루리집』(『신일본고전문학대계 94』 1996), 『라쿠고카이단바나시슈』(『신일본고전문학대계 명치편 6』2006), 『산닌키치사쿠루와노 하쓰가이』(『가부키 스테이지14』2008), 『고단닌조바나시슈』(『신 일본고전문학대계 명치편7』2008) 등이 있다.

나가시마 히로아키(도쿄대학 교수)

동경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교수. 전공은 일본근세문학. 우에다 아키나리와 다케베 아이타리 등의 근세중기 소설이 연구의 중심이다. 저서에 『우게쓰모노가타리의 세계』(1998), 『아키나리 연구』(2000), 공편저에 『다케베 아이타리 전집』(1986~90), 『우에다 아키나리 전집』(1990~) 등이 있다.

이쿠라 요이치(오사카대학 교수)

오사카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교수. 전공은 일본근세문학. 특히 우에다 아키나리, 근세중후기의 가미가 타문단, 「기담」서의 연구 등. 저서에 『아키나리고』(2005), 『잇사이초잔집』(1988), 공편에 『아키나리문학의 생성』(2008) 등이 있다.

사에키 준코(도시사대학 교수)

도시사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미디어학전공 교수. 전공은 미디어학, 여성문화사, 비교문학 비교문화. 고전문학에서부터 근현대 미디어에서의 여성상, 젠더의 문제를 비교문화적 시점으로 연구하고 있다. 저서에 『유녀의 문화사』(1987, 한국어번역출판예정), 『「색」과 「사랑」의 비교문화사』(1998, 산토리 학예상), 『이즈미 교카』(2000), 『이치요 어록』(2004), 『「사랑」과 「성」의 문화사』(2008), 『「여장과 남장」의 문화사』(2009) 등이 있다.

스즈키 준(국문학연구자료관 교수)

인간문화연구기구 국문학연구자료관 교수. 전공은 근세문에. 와카, 와분, 와가쿠(주석), 교카, 교분, 나아

가 일본식 서화 등 근세문예와 고전과의 관련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다. 저서에 『다치바나 지카게의 연구』(2006), 공저에 『하바드 연칭도서관의 일본고전적』(2008) 등이 있다.

사에키 다카히로(세이센 여자대학 교수)

세이센여자대학 문학부 일본어 일본문학과 교수. 전공은 일본근세문학, 특히 근세전기소설. 에지마 키세키의 우키요쥬시를 중심으로 사이가쿠 작품의 향수 양상 및 그 창작방법, 또 최근에는 피이와 웃음에 초점을 맞추어 그 문예성과 중국문학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저서에 『에지마 키세키와 가타기모노』(2004), 『하치몬지야본전집』전23권(공편, 1992~2000), 『니시자와 잇푸 전집』전6권(공편, 2002~2006), 『<총서 에도문고50>도카이도메이쇼키/도카이도분겐에즈』(공편,2002) 등이 있다.

特別企画

今回の〈特別企画〉では、2009年9月18日高麗大学日本研究センターが主管した国際学術シンポジウムでの発表内容を収録した。本シンポジウムでは、日本側の発表者5名の論文と基調講演者1名の論文、韓国側の発表者3名の論文が発表された。ここでは日本側発表者の論文をそれぞれ韓国語と日本語で掲載し、今後日本文学研究をはじめとする地域研究の新たなビジョンと進むべき方向性を模索しようとした。

[特別企画 執筆者 プロフィール]

延広真治(帝京大東京大学名誉教授)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教授を経て、東京大学名誉教授。専門は日本近世文学。舌耕文芸。編著書に『落語はいかにして形成されたか』(1986)、『近松半二 江戸作者 浄瑠璃集』(『新日本古典文学大系 94』1996)、『落語怪談咄集』(『新 日本古典文学大系 明治編 6』2006)、『三人吉三廓初買』(『歌舞伎オンステージ 14』2008)、『講談人情咄集』(『新 日本古典文学大系 明治編 7』2008)。

長島弘明(東京大学教授)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教授。専門は日本近世文学。上田秋成や建部綾足などの近世中期の小説が研究の中心である。著書に『雨月物語の世界』(1998)、『秋成研究』(2000)、共編著に『建部綾足全集』(1986～90)、『上田秋成全集』(1990～)等がある。

飯倉洋一(大阪大学教授)

大阪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教授。専門は日本近世文学。とくに上田秋成、近世中・後期の上方文壇、「奇談」書の研究など。著書に『秋成考』(2005)、『佚齋樗山集』(1988)、共編に『秋成文学の生成』(2008)などがある。

佐伯順子(同志社大学教授)

同志社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メディア学専攻教授。専門はメディア学、女性文化史、比較文学比較文化。古典文学から近現代のメディアにいたる女性像、ジェンダーの問題を比較文化的な視点から研究している。著書に『遊女の文化史』(1987、韓国語翻訳出版予定)、『「色」と「愛」の比較文化史』(1998、サントリー学芸賞)、『泉鏡花』(2000)、『一葉語録』(2004)、『「愛」と「性」の文化史』(2008)、『「女装と男装」の文化史』(2009)等がある。

鈴木淳(国文学研究資料館教授)

人間文化研究機構国文学研究資料館教授。専門は近世文芸。和歌、和文、和学(注釈)、さらに和風の書画などの近世文芸と古典との関わり方に関する研究が中心である。著書に『橘千蔭の研究』(2006)、共著に『ハーバード燕京図書館の日本古典籍』(2008)などがある。

佐伯孝弘(清泉女子大学教授)

清泉女子大学文学部日本語日本文学科教授。専門は日本近世文学、特に近世前期小説。江島其磧の浮世草子を中心に西鶴作品の享受相及びその創作方法、且つ最近は怪異と笑いの焦点を当て、その文芸性や中国文学が受けた影響につき考究。著書に『江島其磧と気質物』(2004)、『八文字屋本全集』全23巻(共編、1992~2000年)、『西沢一風全集』全6巻(共編、2002~2006年)、『<叢書江戸文庫50>東海道名所記/東海道分間絵図』(共編、2002年)等がある。